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 100 ~ 110 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11 月 1 日 (火) 2011 年 第 702 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2-3-18
電話 03 (3202) 5398
発行人 / 金 武 士・編集人 / 洪 性 完
fukuinshinbun@kccj.jp
info@kccj.jp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17:21) 「キリストにあってわたしたちは一つ」(ヨハネ17:21)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1回 定期總會

日 時 : 2011. 10. 10-12

場 所 : 福岡教会

< 福岡教会에서 開催된 總會 >

지난 10 月 10 日 (月) 부터 12 日 (水) 까지 在日大韓基督教会 第 51 回 定期 總會 가 「그 리 스 도 안 에 서 우 리 는 하나 - 키 리 스토 に あ っ て わ た し た ち は 一 つ」 (요 17:21) 라는 主題 아래 福岡教会에서 개최되었다. 李光世長老 (長老副總會長) 司會로 始作한 開會禮拜에서 崔榮信 (總會長) 牧師는 說教를 通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위대한 歷史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 未來와 다음 世代를 위해 準備해야 한다” 고 傳했다. 이어서 金武士牧師 (牧師副總會長) 의 司式으로 聖餐式이 舉行되었다.



< 總代權에 관한 열띤 討論 >

이어서 進行된 總會는 10 月 4 日 까지 宣教分擔金을 納入한 總代만을 點名하므로 總代 138 名 中 123 名 이 出席하여, 崔榮信總會長에 依해 第 51 回定期總會 成立이 宣言되었다 (總會 規則 第 3 條 1 項 [...宣教負擔金을

完納한 教會의 總代에게만 總代權이 있다]). 지난 3.11 東日本 大震災의 影響으로 財政의 困窮을 겪게된 關東地方會 教會들이 宣教負擔金을 完納하지 못하여 그 總代權에 對한 論議가 있었다.

그러나 第 51 回定期總會는 지난 第 50 回期の 宣教分擔金을 納付하지 못한 教會에 對해서 總代權을 認定하지 않기로 한 第 50 回總會期 第 5 回 常任委員會 (2011.9.20) 決議를 無記名投票 (贊成多數) 로 再確認하였으며, 어려운 가운데도 宣教分擔金을 完納하거나 持參한 教會에 對한 總代權을 認定하여 總代는 140 名으로 確認되었다.

이에 書記 權寧國牧師가 新總代員들을 紹介하자 모두가 박수로 歡迎하였으며, 總幹事 洪性完 牧師는 總會長 (尹宗銀牧師, 金君植牧師) 과 副總會長 (金漢範長老) 等의 來賓을 紹介함과 同時에 總會에 關한 全體的인 案內를 하였다. 會順採択에 이어 第 5 回常任委員會에서 任命된 運營委員 (會議錄書記, 選舉管理委員, 報告書審査委員, 獻義案審査委員, 進行委員) 이 確認되었으며, 第 50 回 總會 會議錄과 各委員會와 機關들의 活動報告도 承認되었다. (2 面繼續)

總會長 金武士 牧師·副總會長 趙重來牧師·林英宰長老

저녁 食事 後 一旦 報告를 中止하고, 總會長·副總會長 選舉를 始作하였다. 總代員 確認을 하니, 宣教分擔金을 完納한 教會가 있어서 總代承認의 可否를 물어 許諾받으니 總代員數는 142 名中 總會出席 127 名으로 最終 確認되었다. 選舉 結果 總會長에는 第 50 回總會期 副總會長인 金武士 牧師 (大阪西成教会) 가 過半數 以上인 73 票를 얻어 當選이 確定되었다.

이어서 牧師·長老 副總會長 選舉가 進行되었다. 牧師 副總會長과 長老 副總會長은 各各 1 次 投票에서 過半數 以上の 得票者가 없으면 總會規則 第 6 條를 適用하지 않고 上位 2 名으로 2 次 投票을 實施하자고 한 選舉委員長 朴太元牧師의 提案을 받아들여 1 次 投票에 이어서 2 次 投票을 實施한 結果, 趙重來牧師 (船橋教会) 와 林英宰長老 (武庫川教会) 가 當選되었다. 이렇게 하여 첫 째날은 밤 9 時 30 分까지 會長團을 選出하는 것으로 日程을 마무리하였다.



< 日本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祝賀 來賓들이 參席 >

總會 2 日째 아침 8 時 30 分부터 召天者 追慕禮拜가 嚴肅하게 舉行되므로 始作되었다. 이어서 定期總會 開催를 祝賀하는 인사와 激勵을 爲하여 訪問한 來賓을 總幹事 洪性完牧師가 紹介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김재동 (海外韓人長老會教會 (KPCA) 總會長夫妻), 장세일 (海外韓人長老會教會 (KPCA) 總務), 高太亨 (米國長老教韓人教會全國總會 (NCKPC) 總會長夫妻), 나흥균 (韓國基督教長老 (PROK) 副總會長夫妻), Carlos Ocampo (아시아 그리스도教協議會 (CCA) Executive Secretary), Ann Moore (PCUSA 在日本宣教師), 井上一雄 (日本 그리스도教會 (CCJ) 大會議長), 石橋秀雄 (日本基督教団 (UCCJ) 總會議長), 城倉 啓 (日本 그리스도教協議會 (NCCJ) 副議長). →

隱退를 맞이하는 牧師와 長老들을 爲하여 感謝를 전하기도

그리고 第 51 回總會期 中에 隱退하게 될 牧師와 長老에 對한 紹介와 인사가 있었으며 (崔正剛牧師, 金勇聖長老, 朴珍烈牧師, 林芳子長老, 李清一牧師, 李圭哲長老, 李鍾國長老), 이들의 勞苦와 恩惠로운 隱退를 위하여 李聖雨牧師가 祈禱를 하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時間도 주어져서 總會가 會義 만이 아니라 全國總會教會의 交際와 사랑의 場所임을 再確認시켜 주었다.



< 各種 獻議案에 열린 討論을 >

慣例上 獻議案 處理는 새로이 選出된 新任 總會長의 議事進行으로 되어져 왔으나, 常設委員會 創設에 關한 常任委員會 獻議案이 먼저 處理되어야 第 51 回總會期 組織이 可能하므로 부득이 第 50 回總會期 總會長 崔榮信牧師가 다음 獻議案들을 處理해야만 하였다. 獻議案 1 号: 年金委員會 - 常設委員會創設 및 關連案件 (100 名 中 贊成 81 名, 可決), 獻議案 2 号: 讚頌歌委員會 - 常設委員會創設 (100 名 中 贊成 43 名, 否決), 獻議案 3 号: 人事委員會 - 常設委員會創設 및 關連案件 (107 名 中 贊成 44 票, 否決)

< 新常任委員會 組織 承認 >

年金委員會가 常設委員會로 創設됨에 따라, 午後에는 새로운 第 51 回總會期常任委員이 總幹事 洪性完牧師가 陪席한 가운데 新・舊會長團과 5 地方會長에 의하여 組織되어 承認받았다.

會長: 金武士, 副總會長: (牧師) 趙重來, (長老) 林英宰, 書記: 樞寧國, 副書記: 朴太元, 會計: 金石水. 常設委員會; 宣敎委員長: 崔榮信, 教育委員長: 李聖雨, 神學考試委員長: 李根秀, 社會委員長: 朱文洪, 信徒委員長: 中江洋一, 財政委員會: 金石水, 憲法委員長: 鄭然元, 年金委員長: 全三郎. 特別委員會; 讚頌歌委員長: 金必順, 歷史編纂委員長: 金健, 人事部長: 總會長



이어서 鄭然元牧師 (曾經總會長)의 司會로 第 51 回總會期 常任委員의 任命式에 이어서 新・舊 常任委員들의 交代가 이루어졌다. 新總會長인 金武士牧師가 議長이 되어 總會는 계속 進行되어 갔다. 5 地方會長이 각각 地方會 報告를 하였으며, 그 가운데 西部地方會의 神戶東部教會 被包括關係廢止의 件과 中部地方會에 報告 또는 相議없이 豊田메구미 傳道所를 離脫하여 岡崎教會로 居處를 옮긴 許光涉牧師의 治理結果에 關한 質問 등이 이어졌지만 地方會報告대로 承認되었으며, 會計監事報告와 各委員會의 委員들 構成에 對한 人事와 會計報告가 升引되었다.



<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熱띤 獻議案 審査 >

둘째날 밤 9 時가 훨씬 넘도록 進行되었던 獻議案 審査는 다음날 8 時 30 分부터의 敬虔會 以後, 熱띤 論議으로 이어졌다. 主要 獻議案들은 다음과 같다.

獻議案 4 号: 社會委員會 要望書・聲明文 (承認), 憲法委員會獻議案 1: 視務牧師에 關한件 (92 名 中 贊成 77 名 可決), 憲法委員會獻議案 2: 各地方會規則第 5 条 (職務) 改正 (91 名 中 贊成 81 名 可決), 憲法委員會獻議案 3: 勸懲條例 改正案, 憲法委員會獻議案 4: 裁判規定 (84 名 中 贊成 65 名 可決), 憲法委員會獻議案 5: 勸懲條例 改正에 따른 憲法改正 (85 名 中 贊成 71 名 可決), 憲法委員會獻議案 6: 勸懲條例 改正에 따른 憲法改正 (85 名 中 贊成 76 名 可決), 獻議案 7 号: 信徒委員會獻議案 (86 名 中 贊成 74 名 可決)

< 東日本大震災 被災地支援報告 >

東日本大震災 K C C J 4 者對策協議에 關한 報告와 東日本大震災 被災地支援에 關한 報告는 同 4 者對策協議 書記인 許伯基牧師가 슬라이드 映像을 통하여 불런티어 活動을 傳하였다. 그리고 災害地域 教會 中에서 郡山伝道所의 朴正根牧師와 山形우리教會 李明信牧師가 各各 報告하였다.

(3 面繼續→)

在日同胞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 2006 年 4 月 25 日、創立 100 周年を迎えました。



-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 (ホテル): フロントは日・韓・英語を対応、24 時間サービス。10 名様から 2020 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 (50 名様) も可能。
- ◆スペースワイホール: 220 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最適
- ◆韓国文化 (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 教室・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 ◆YMCA アジア語学院 (日本語学校)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

在日本韓国 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東京韓国 YMCA 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関西韓国 YMCA 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TEL 03-3233-0611 FAX 03-3233-0633

TEL 06-6981-0781 FAX 06-6981-0782

(税込み)	平 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300	¥5,040
ツイン	¥11,550	¥9,240
トリプル	¥14,490	¥11,592
朝食 ¥200 カルピックパ、コムタン、ユッケジャン、韓定食、洋食 (全メニューコーヒー付き)		

東日本大地震 復舊을 위한 奉仕와 參與, 그리고 活動報告를 듣는 總代員들의 關心은 매우 뜨거웠다. 被災地域에는 同胞를 포함한 外國人도 相當數 居住하고 있음을 새삼 認識하고, 이제까지 日本社會속의 少數者로서의 立場을 외쳐 온 우리가 우리보다 더 社會的 弱者인 그들을 關心을 갖고서 돌보지 못하고 있음을 悔改하였다.

〈繼續된 獻議案 審査〉

셋째 날 점심 食事 後에도 獻議案 審査는 繼續되었다. 審議된 獻議案은 다음과 같다. 獻議案 8 号: 在日韓國基督 會館 理事 承認 獻議案 (過半數 贊成으로 可決), 獻議案 9 号: 西南 KCC 理事承認 獻議案 (多數贊成으로 可決), R A I K 理事承認 獻議案 (壓倒的 多數贊成으로 可決), 會神學校 獻議案 (81 名中 贊 56 名 可決), 特別委員會 存續 (史編纂、讚頌歌) 獻議案 (壓倒的 多數 贊成으로 可決). 10 年 実行委員會는 閉鎖됨에 따라 그 役割을 任員會와 常任委員會가 이어가기로 하였다.

이어서 各 委員會의 活動計劃書가 配付되었으며 獻案審査委員會를 通過한 獻議案들이 延이어 上程되어 審議가 繼續되었다. 緊急獻議案 1 号: 宣教負擔金 送金窓口를 地方會로 一元化 (贊成 54 名으로 可決되었으나 그 方法等에 關하여 總幹事와 財政委員會가 論議하도록 하다), 緊急獻議案 2 号: 常勤者인 幹事が 牧會를 兼任하도록 하자는 總會規則改正의 件 (75 名中 贊成 12 名 否決), 緊急獻議案 3 号: 幹事 任期를 4 年에서 2 年으로 하자는 總會規則改正의 件 (75 名中 贊成 5 名 否決),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 年 予算案 承認이 있었다.

〈한 몸이 되어 KCCJ 의 새로운 비전과 目標를〉



在日大韓基督敎會 (KCCJ) 第 51 回 定期 總會는 新任 總會長인 金武士 牧師가 閉會禮拜 設敎 (히브리서 3:6) 를 通하여 전한 메시지로 恩惠 가운데 聖了되었다. 金武士 總會長은 먼저 2 泊 3 日間の 熱띤 論議를 마친 總代들을 激勵하였으며,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며, 한 몸을 믿고 가는 것이 重要하다” 고 전했다. 그는 “환상과 꿈이 없는 百姓은 亡한다고 한 것처럼 KCCJ 라는 103 年이나 持續된 집이 여러 가지 意味로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原因은 비전이 흐려졌기 때문이며, 새로운 總會期를 맞아, 힘든 時間을 이겨온 先輩들처럼 한 몸이자 한 家族임을 믿고,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으로 함께 가길 願한다” 고 傳했다.

또한 青年會全國協議會 (全協)는 今番 總會 會場에서 活動에 關한 報告와 協力을 要請하였으며, 總會에 參席한 總代와 全國 敎會로부터 114,251 円의 贊助를 받아 대단히 感謝하다는 인사와 더불어 이러한 祈禱와 應援과 協力에 힘입어 앞으로도 全國青年들을 위하여 熱心히 活動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傳해 왔다.

(報告: 編集部)

〈写真으로 보는〉

第 51 回定期總會 이모저모



豊かな味はころまで豊かにする。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敎會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Fax. 03-3353-6200

＜大震災報告＞山形ウリ教会 李明信牧師「現場으로 가라」

〈災難地域과 함께 하는 山形우리教會〉

지난 3월 11일, 日本의 東北地域을 흔든 地震과 쓰나미(이하, 津波), 그리고 原子力發電所의 事故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宣敎의 새로운 轉換을 가져왔습니다. 敎會라는 울타리를 걷고 災難의 現場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삶의 터전과 家族을 잃고 茫然自失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써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希望의 메시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3·11 災難以後, 지난 6個月 동안 계속적으로 봉사해 온 山形우리敎會의 宣敎奉仕活動을 中心으로 展開하려 합니다. 지금 日本 東北地方의 宣敎는 變化의 岐路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災難 앞에 依然한듯 하지만, 산산히 부서진 삶의 基盤 앞에 假設住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苦痛은 말로 表現할 수가 없습니다. 想像할 수 없는 엄청난 災難 앞에 도대체 무엇이 問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生의 問題를 묻고 依支할 對象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神社도 절(寺)도 함께 부수어졌고, 復舊의 자리에는 스님(お坊さん)들도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 災難의 現場이야말로 生命의 宗教인 基督教가 應答할 때입니다. 아픔의 자리에 찾아가 함께 아파하고, 希望을 노래하며, 함께 일하며 땀을 흘려야 합니다. 지금은 敎會로 찾아오기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찾아가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敎會들도 被害를 입었습니다. 저희 山形우리敎會도 敎人들 중에 많은 數가 韓國으로 돌아갔으며, 敎會 壁에는 금이 많이 가서 壁面이 떨어지고, 敎會 部品들이 부서지는 被害를 입었지만, 津波 被害를 입은 地域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습니다.

3·11 大地震이 일어나 地盤이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은 제 마음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믿는 믿음의 土臺는 무엇이나?” 주님이 제 人生의 토대이고 하나님의 攝理를 믿는다면 不安해 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때부터 現場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敎會의 諸職들과 弟子訓練을 받은 信徒들을 모아 被害現場과 避難所들을 돌아 보았습니다. 3월 30일에 山形우리敎會 女宣敎會에서는 오니기리 650名 분과 겹라면 900個, 그리고 東京에서 生活用品들을 트럭에 싣고 온 팀과 協力하여 電氣, 가스, 水道도 없는 地域인 이시노마끼(石巻)에 가서 奉仕하였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바다 진흙이 덮인 農家 앞마당에 긴 행렬로 늘어선 被災民들에게 飮食과 物品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녁 늦은 時間까지 추위와 싸우며 奉仕하고 돌아오는 女宣敎會員들의 마음은 수고의 뿌듯함으로 充滿했습니다.

信徒들은 奉仕에 參加한 이야기를 家族들과 함께 나누며 異國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自身들의 存在感을 確認하며, 하나님께서 自身들을 보내주신 宣敎의 자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픔의 자리에 찾아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地域社會의 아픔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宣敎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地域社會 또한 敎會에 對한 認識을 새롭게 하는 契機가 되었습니다.



〈石巻에서 女宣敎會員들〉

그 후 敎會는 災害地域을 위해 韓國을 비롯한 世界 여러나라에 奉仕者들을 募集하였으며, 6月에는 東京地域에서 宣敎하고 있는 監理敎 牧會者들이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月初에는 韓國의 光云大學敎會에서 온 奉仕팀과 聯合하여 浸水地域을 위해 宣敎奉仕活動을 하였습니다.

또한 山形우리敎會는 被災地를 위해 通路의 役割을 하는 것도 宣敎의 一環이라고 생각하여 被害現場과 連結을 지어주면서 奉仕하고 있습니다. 물론 被害現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復舊를 위해 일하는 것도 큰 意味가 있겠지만, 敎會 信徒들을 訓練시키고, 奉仕를 위해 찾아오는 이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信徒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것도 重要하기 때문입니다.

8월 8-12日에는 名古屋敎會가 4泊 5日의 夏期修練會로 奉仕하러 와서 山形우리敎會의 여성교회와 聯合하여 石巻의 蛇田中學校 體育館에 設置된 避難所에 가서 飮食을 提供하였으며, 假設住宅에서 生活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시락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5面繼續)



학습과 세례를 위한 준비교육 소책자

(學習・洗禮・入敎 敎育小冊子)

학습・세례・입교 교육은

준비교육 소책자를 이용하시면 유익합니다.

- 한국어 일본어 겸용이네요!
- 현대어 표현으로 알기 쉬워요!
- 글씨가 크고, 내용도 충실하네요!
- 申請: 總會事務局 (03-3202-5398)



그리고 두 教會가 함께 聯合禮拜를 드리며 交際를 나누었습니다.



8 月 15-19 日 까 지 는 大 阪 南 港 傳 導 所 에 서 3 名 의 젊은이들이 現場을 찾아와 奉仕하였으며, 8 月 27-28 日 까 지 는 全國女性聯合會와 關東地方會女性聯合會 任員들이 함께 被災地를 돌아보고, 함께 主日禮拜를 드리고 女宣教會원들과 交際하는 時間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東京教會와 關東地方會 女性會에서도 持續적으로 奉仕하러 올 豫定이며, 11 月에는 美國 UMC 일리아노州의 監督과 宣敎部總務가 被災地를 訪問하기 위해 4 泊 5 日의 日程으로 山形우리教會에 옵니다.

〈物品과 精神과 靈魂의 糧食 (비전) 을 提供해 주는 倉庫型教會가 되어 가야〉

現在 被災地域에 여러 基督教 奉仕團體들이 活動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災害現場을 復舊하고, 假設住宅에서 生活하는 이들의 必要한 物品을 提供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物品調達, 상처받은 心靈들의 治癒, 生의 비전을 주는 일을 教會가 해야합니다. 지금까지의 禮拜드리는 空間으로서의 教會보다는 地域社會가 必要로 하는 物品과 精神과 靈魂의 洋食 (비전) 을 提供해 주는 倉庫型教會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教會가 地域回復의 中心센터가 될 때에 日本 宣敎는 새롭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픔의 자리, 苦難의 現場에서 저들의 苦痛을 外面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부릅니다. 이 때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 日本 땅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글 : 山形우리教會 李明信牧師)



이 報告는 福音新聞 編集部가 山形우리教會 李明信牧師에게 오랫동안 付託하여 어렵게 보내 온 글입니다. 더 많은 內容들을 실었으면 좋겠지만, 紙面上 簡略하게 要約하여 紹介하였습니다. 被災地 地域에서 日本 宣敎를 위하여 最善을 다하는 教會와 教會員들과 奉仕者들에게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青年会全国協議会＞東京教会 第 49 回定期全国協議会開催

9 月 23 日 (金) ~ 24 日 (土) にかけて、青年会全国協議会 (以下: 全協) の第 49 回定期全国協議会が東京教会で開催された。全国から 24 名 (内代議員 14 名) の青年が集まった。1 日目は、東京教会の李元泳副牧師による開会礼拝を行った。その後、2010 年度の中央委員による各部、地方会の 1 年間を通しての活動報告と展望、また各部長、地方会会長、代表委員による総括が報告された。その中で、多くの意見や質問を交わし合った。



2 日目には、建議案と討議事項についての話し合いから始まった。2013 年に迎える全協 50 周年に向けた特別部の設置や、総会に青年担当幹事を設置してもらう働きかけ、青年主日の活性化など、次年度に向けて実りのある話し合いが行われた。その後は、2010 年度中央委員を解散し、新たに 2011 年度中央委員の改選を行った。ここでは、多くの青年から立候補の手が挙がり、中央委員に対する意気込みを熱く語った。そして新たに 2011 年度の中央委員を成立した。

＜2011 年度中央委員＞

代表委員: 朱美恵 (東京)、副代表: 金耿昊 (横須賀)、総務: 金在源 (川崎)、書記: 金沙織 (東京)、財政部長: 朴正薫 (大阪)、企画部長: 安藤周平 (名古屋)、企画部員: 守屋慧健 (東京)、広報部長: 崔惠理 (東京)、広報部員: 熊谷明美 (名古屋)、地方会振興部長: 郭正勲 (川崎)、地方会振興部員: 白勝和 (大阪)、全協 50 周年事業部長: 姜洋一 (大阪)

その後、李明忠牧師 (横浜教会) による閉会礼拝が行われ、定期全国協議会を恵みの中で終えることができた。新しい全協中央委員が神様の御心のままに、共に歩み、また、全協という場所が全国の青年一人一人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場所となるように活動していきたい。そして、いつも応援し支えてくださっている信徒の皆様、牧師たちに感謝したい。

(報告: 金在源)

＜訂正とお詫び＞

10 月号の 2 面の＜全国青年協議会＞夏期修養会の写真は、夏期修養会のものではなく、2 月に行われた「青年のための研修会」のものでした。お詫びし、訂正いたします。

関東地方会・総会神学校共催 목회자를 위한 컴퓨터세미나

〈목회자를 위한 인터넷 활용과 영상 세미나〉

지난 9월 26일 관동지방회에서는 교육부와 총회신학교가 공동으로 목회자를 위한 컴퓨터세미나를 총회신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주일을 마친 강사 목사들은 월요일 새벽에 공항에 도착하여 곧 바로 총회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바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봉사해 주었다.

본 세미나는 강사와 수강자들이 보다 알차고 올바른 소통과 실천 교육을 위하여 선착순으로 15명(회비 4,000엔)을 모집하였는데 각 교회 교역자들이 25명이나 신청하여 참가 할 정도로 목회 현장에서 멀티미디어 활용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열띤 세미나가 되었다. 이 세미나를 위하여 강사 소개와 섭외를 한 것은 미사와교회의 전승대목사이다.

강사로 봉사한 김근수목사는 대전의 행복한 교회 담임목사이며, 목원대학교와 한신대학교와 한남대학교에 멀티미디어 강좌에 출강 중이다. 그리고 진영훈목사는 삼일교회 담임목사로 멀티미디어 선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연구회 회장이다.



〈미디어는 테크닉이 아니라 소통의 방법을 강력하게 하는 수단〉

조영석목사(교육부장)의 기도에 이어 곧바로 김근수목사가 〈통하는 세상, 통하는 목회〉라는 제목으로 1강을 시작하였다. 김목사는 우선 미디어는 테크닉이 아니라 〈소통〉의 방법을 강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개척 15년을 통하여 기독교 멀티미디어 선교회와 멀티미디어 예배를 개발하였으며, 멀티미디어 신학적 교육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목사는 미디어와 영성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교회 안에서 역기능을 많이 경험하게 되므로 멀티미디어의 정확한 개념을 잡을 것과 오용과 남용은 금물이라고 거듭 주의하였다. 김목사는 무엇보다도 소통의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양하게 활용하라고 당부하였다.

김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사역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으며, 너의 자손을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말씀과 동시에 직접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실 때,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깃들고 찾아오는 것으로 천국을 그려 주셨다. 이것이 멀티미디어적 가르침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천국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주신 것이다. 말로만 하고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도 바람처럼 불처럼 느낄 수 있도록 보여 주셨다고 강조하였다.

〈절제된 영상의 중요성〉

이어서 오후에는 진영훈 목사가 실전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사진 만으로 가능한 동영상 만들기(베가스 비디오), 작지만 강력한 멀티미디어 툴 배우기(왕초보도 가능한 작고 쉬운 툴 모음, 프로그램 제공), 멀티미디어 자료 나누기(멀티미디어 자료 활용방법 나누기, 자료용량 500GB)를 가르치는 긴 시간의 강의였으나 진목사 특유의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 가면서 강의하므로 컴퓨터를 모르는 교역자들도 재미있고 알기 쉬운 강의를 통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따라갈 수 있었다.



진목사는 참가자들에게 〈절제된 영상〉이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필요한 영상만 보여주고 활용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2,3분의 영상이 좋으며, 5분을 넘기면 힘들다면서 자신의 실패 경험담을 전했다. 진목사는 또한 〈무엇보다도 본인교회 이야기를 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며, 그것은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 등이므로 교인들이 영상과 목소리로 참가하게 하라〉고 하였다.

진목사의 강의와 목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교인들의 장례식이다. 모든 교인들의 유언들을 비디오로 녹화를 해 두어 장례식 때 상영하므로 인하여 자녀들을 위한 전도와 신앙계승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하여〉

금번 컴퓨터 세미나는 목회 현장과 예배에서는 영상을 사용한 미디어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영상과 음악을 활용하여 베가스비디오를 통하여 스스로 영상편집을 해 보기도 하였다. 또한 금번 세미나를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한국 컴퓨터와 일본 컴퓨터의 차이이다. 서로가 통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노출 된 것이다. 이것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일본의 열악한 교회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예배와 선교에 활용되는 컴퓨터 활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목회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일부 교인들에게도 목회자들을 향한 영상미디어 교육을 통하여 영상사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세미나였다고 평가된다.

(보고 : 편집부)

創世記連続講解 (8)

尹宗銀 牧師
(横浜教会名誉牧師)



創世記 14 章

創世記 14 章の総主題は、『アブラムの正義の戦争』であるが、それを分解すると 5 項目に分けられる。

- ① 1-9 節: ソドムの王とエラム〔Elam〕の王たちとの対戦。
- ② 10-12 節: ソドム軍の敗北とロトの拉致。
- ③ 13-16 節: アブラムの追撃とロトの救出。
- ④ 17-20 節: メルキゼデク〔Melchizedek〕がアブラムを祝福する。
- ⑤ 21-24 節: ソドム王がアブラムを歓迎する。

本章は、ソドムの戦争とロトが拉致されたこととアブラムがロトを救出したことの記録である。ロトがソドムを選んだ結果、彼がソドムに移住した矢先にこのような困難に出合った。世を愛して肉に属する信者の末路は、困難に出合う。アブラムのように世と因縁を絶つ者だけが、患難を免れるだけでなく他人をも救う事ができる。

アブラムは、ヘブロン〔Hebron〕で神との交わりを通して神から常備の力を得て甥ロトの拉致の消息を聞くや否や家兵 318 人を率いて追撃することによって、ロトとその他の人々と略奪された財産とを奪還した。友軍と敵とを比較するならば、九牛の一毛の違いがある。しかし彼は、命を掛けて戦った結果勝利した。このような勇氣は、神を信仰し人を愛する心から発揮された。

だれでも神を敬い、人を愛する者は、このような勇氣を発揮することができる。主イエスは、『友のために自分の命を捨てること、これ以上に大きな愛はない』(ヨハネ 15:13) と言われた。アブラムの奇跡的な勝利は、ソドム人には大きな衝動を与えると同時に、サレムの王メルキゼデク〔Melchizedek〕とソドムの王からは歓迎され祝福された。前者は祝福で持って、後者は物質で歓迎された。

ヘブライ人への手紙の記者は、メルキゼデクに対して、①〔義の王〕、②〔サレムの王〕、③〔平和の王〕で〔父もなく、母もなく〕神の子に似た者であって、永遠に祭司です、と証言している。これはキリストに似た王である。

創世記 15 章

創世記 15 章の総主題は、『アブラムが義と認められる』であるが、それを分解すると 5 項目に分けられる。

- ① 1 節: 神がアブラムを激励する。
- ② 2-5 節: アブラムに子孫に対する約束。
- ③ 6-11 節: アブラムが義と認められ、神の契約。
- ④ 12-16 節: 子孫がエジプトに下って行くと言言。
- ⑤ 17-21 節: 火をもって相互間の契約を確認する。

本章は、アブラムの義認と子孫と土地を継がせることに對する神の約束の記録である。アブラムがエラムの敵を思い

煩う時に、神が現れて、『恐れるな、アブラムよ。わたしはあなたの盾である。あなたの受ける報いは非常に大きいであろう』と言われる。神が共におられる所には恐怖も思い煩いもあり得ない。アブラムは子供がないので嘆く時に、神は彼を連れ出して空の無数の星を示しながら、「あなたの子孫がああ星のように多くなるであろう」と言われた。『信仰とは、望んでいる事柄を確信し、見えない事実を確認することである』(ヘブ 11:1)。アブラムがこの約束を信ずる時に、神は彼の信仰を義と認められた。信仰の土台は神の言葉であり、信仰の結果は義認である。

アブラムは、この約束の成就のために証拠を求めた時に、契約者の間に流行した風俗に従って犠牲の祭物を通過することによって契約を結ばれた。神は、彼の子孫たちがエジプトに行つて、400 年間奴隷として苦しみを受けた後、救出されることを預言した。この預言は出エジプトをもって成就された。燃える松明の間を通り過ぎることは、神の臨在の象徴である。血のある所に火がある。本章の中で『義認』、『献身』、『聖なる生活』の三大の真理を学ぶことができる。

創世記 16 章

創世記 16 章の総主題は、『アブラムが再び失敗する』のであるが、それを分解すると 4 項目に分けられる。

- ① 1-3 節: サライが夫アブラムを誘って女奴隷ハガル〔Hagar〕をアブラムの側女にした。
- ② 4-6 節: 妻と側女の間に衝突が生じハガルは逃亡した。
- ③ 7-14 節: ヤ・ウェの使者がハガルに現れて慰めて勧めた。
- ④ 15-16 節: ハガルが息子イシュマエル〔Ishmael〕を産む。

本章は、アブラムの不注意によって二度目の失敗の記事である。前章で、神はアブラムに子供を与えると確かに約束したにもかかわらず、サライは不信仰でこの約束を信じなかったのもので、人間の手段を利用しようとした。それは夫を説得してハガルを妾にするようにして、彼女から子供を得ようとした。信仰の人アブラムもこれを拒むことなく同意することによって千秋の恨みの過ちを犯した。

その当時の風俗によれば、本妻に子供が生まれない場合は妾を夫に与えて自分の代わりに子供を産ませるならわしがあった。サライの考えでは、自分は既に断産の身になっているので、折角の神の約束が自分によって妨害になるかと言う思いで非常手段を使用したようである。

しかしこれは、神の約束を知らない人間の謀略である。アブラムも信仰生活を 10 年以上もして来たが、未だ神の前では不完全であったので、神の言葉よりも人情のサライの言葉に従ったので失敗してしまった。

彼が不信仰によって罪を犯した結果、家庭不和のゆえに、三人が同様に苦しめられた。ハガルは追い出されて故郷に戻る途中、神の使者(天使)に出会い、本分を守って主人のもとに帰って服従することと悔い改めて神の摂理を待ち望むように命じられた。彼女の苦しみは、自分の奴隷であると言う身分を超えて主人を無視したことからもたらされた。

＜西部地方会＞女性連合会 第 24 回修養会開催

講師には、宋泰根牧師 (서울 강남교회 담임목사)



西部地方教会女性連合会主催による、第 24 回修養会が去る 10 月 20 日 (木)～21 日 (金) スプリング G・A リゾート淡路で宋泰根牧師 (ソウル江南教会担任牧師) を講師に迎えて開催された。参加者は牧師 7 名を含む 42 名であった。

開会礼拝は、崔美恵子副会長の司会で進み、宋泰根牧師より「先に滅ぼすべきもの」(サムエル上 15: 1～3) という題でメッセージと祝福があった。

主題講演 I では「管理人の知恵①」(ルカ 16:1～8) と題し、主人のお金を浪費した管理人が、負債者の負債を軽くすることに依り自分の為に次に行く道を備え、自分を迎え入れてくれる人を作ることに依り自分の身を守ったことの利口さを語られた。主人のお金であっても主人のお金ではなく、自分のお金でも自分のお金ではないという事実が大切であると解かれた。人は天国に入る時、お金を持っていても意味がないということを語られ、私達もこの不正な管理人の様に知恵のある人間であるようにと語られた。

夕食後の交流会及び讃美と祈りの時間には、朴斗熙牧師の指導の元、讃美と祈りを中心に全員が心から家族、自教会と他教会の為、又、西武女性連合会の為に祈り、満たされた時間を持つ事が出来た。又、不参加の教会の信徒の方達の、教会での活動やメッセージを映像で紹介する事で、参加者と一体感を確認し合えたことは良かった。

2 日目の朝祷会では、前会長の沈貞兎顧問の“この道、私の旅の途中の道”と題しての証しがあり、夫婦で辛い経験の

東日本大震災 KCCJ 募金口座案内

- ・銀行 (BANK): 三菱 UFJ 銀行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支店 (BRANCH): 高田馬場支店
(TAKADANO-BABA)
- ・種類 (SWIFT): 普通預金 (BOTKJPJT)

中にあっても希望を持って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たことは感謝であり、今生かされている旅の途中の私に与えられた人生を全うする迄、神の香りを放つことの出来る自分自身でありたいと話された。

主題講演 II では、引き続き「管理人の知恵②」で申命記 1 章、ルカ 15 章～16 章を通して、聖書の中での“無駄使い”とは、神に不従順であること、又自分勝手な行動で神から離れることであると説かれ、私達はどんな時でも神に従順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られた。

閉会礼拝は、李炫知会長の司会のもと、宋泰根牧師より“神様と心を通わせよ”(サムエル上 1: 15) というメッセージの後、梁栄友牧師の祝福で終わった。参加者一同、神に従順であり、神と心を通わせることの出来る信仰者となる希望を持って家路に着いた。

(報告: 書記 賓景淑)

在日大韓基督教会 第 51 回定期総会組織

職分	名前	職分	名前
総会長	金武士	副総会長 (牧)	趙重來
		副総会長 (長)	林英宰
書記	權寧国	副書記	朴太元
会計	金石水		
宣教委員長	崔榮信	教育委員長	李聖雨
神学考試委員長	李根秀	社会委員長	朱文洪
信徒委員長	中江洋一	財政委員会	金石水
憲法委員長	鄭然元	年金委員長	全三郎
讃頌歌委員長	金必順	人事部	総会長

部署名	委員長	部 員
神学考試	李根秀	千相鉉、金性済、趙永哲、金聖孝、金承熙、朴榮子
社会	朱文洪	許伯基、李根秀、崔春子、中江洋一、金成元、佐藤信行、(準) 女性会、青年会
憲法	鄭然元	金健、金聖孝、李太宗、牟大盛、白承豪、黃貞順
讃頌歌	金必順	李聖雨、朴榮子、韓澤柱、崔亨喆、(準) 吳寿恵
信徒	中江洋一	金貞姫、李炫知、尹聖哲、朱美恵、(長老会)、(青年会)
年金	全三郎	金容贊、金貞子、韓澤柱、金秀生、金柄鎬
教育	李聖雨	崔和植、全聖三、曹泳石、金明均、(準) 吳寿恵
歴史編纂	金 健	金成元、李相勳、李省展、金承熙
宣教	崔榮信	李炳堉、金東洙、金鐘賢、金仁果、李重載

総幹事: 洪性完

福音新聞原稿募集

- ・内容: 各報告、証し、説教、自由投稿、
- ・対象: 在日大韓基督教会の全信徒
- ・言語: 韓・日語 (得意な言語をお願いします)
- ・写真: 1～3 枚程度
- ・期間: 年中 (締め切り: 毎月 19 日)
- ・送信先: fukuinshinbun@kccj.jp
shinacho2003@daum.net

*添付ファイルは、word 文書をお願いします。

福音新聞社 編集部